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4일 목요일 음 2월 26일 (3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3℃, 낮 최고기온은 17℃로 전망된다. 제주도 전 해상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d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information.

자외선지수 보통,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2/17℃, 모레 구름많음 12/17℃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중국, 대만 최대 강진에 위로 메시지

“필요한 지원 제공할 것”

중국 정부는 3일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 평롄(朱鳳蓮)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중국) 대륙은 큰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이어 “재해와 후속 상황을 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재난 구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대만 지진과 피해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뤘고 중국 누리꾼들도 대만 동포



규모 7.4 강진에 기울어진 대만 건물. 연합뉴스

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글들을 인터넷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 화롄에서는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7.4(유럽지중해지진센터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했다. 건물 최소 26채가 붕괴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목요담론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돌담과 덕담은 잘 쌓아야 오래 간다

던 한 어르신이 멀치 때를 보고는 동네 올레길을 돌며 ‘뭇 들었쑤다’ 하며, 외쳐준다. 너나없이 바가지, 양동이, 구덕, 비닐포대 등을 들고 서둘렀다. 잠든 아이들도 깨웠을 정도로 멀치는 귀한 선물이었다.

바닷가의 원담 못지않게 발담도 잘 쌓아야 한다. 바람 잘날 없는 섬이기에, 바람이 심할 때는 발흙 뿐만 아니라 곡물 씨앗마저 날아가 버린다. 아버지들이 원담을 돌아보듯 강풍이 지나가면 발담이나 올레담을 돌아보는 게 큰 일과였다. 태풍 때에는 바닷가 돌들이 육지로 올라올 정도여서, 발담도 무사할 순 없었다. 무너진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이웃 삼촌들이랑 함께 거들었다. 요즘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절이라, 쌓을 때도 보습할 때로 큰 걱정이었다. 작정과 환해장성 그리고 방사탑과 불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이웃들의 하나 된 힘이였다.

돌담을 쌓는 일은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값진 일인가를 보여주는 유산인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다. 제주 사람들은 모두가 돌담 전문가이다. 기초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돌담 틈새를 이용하거나 때우는 솜씨 그리고 돌담을 깨거나 다듬는 역할, 특히 쌓는 일은 힘과 요령이 중요하다. 서로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과정 속에서 양보와 배려의 아름다움, 서두름과 게으름의 교훈 그리고 유비무환을 몸소 터득하게 됐다. 군대에 가서도 돌담을 쌓는 일은 죄다 제주 청년들이 담당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돌담이 무너져도 일으켜주지 않고, 원담에는 물고기와 오분자기(오분제기) 대신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 뿔이 들어와도 잡을 생각이 없고, 산

담은 왜 쌓았는지 따진다.

한때 온통 까만 현무암으로 가득 해서인지, 섬의 역사가 암울했다. 제주 사람들은 돌과 바람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지만, 돌과 바람 덕분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 모두가 아파하는 약담보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덕담을 남겨야 한다. 담을 쌓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던진 말도 그렇다. 말하는 순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판 가름이 나며, 원담 위에 얹은 바다 직박구리(영생이)도 들었다. 발담, 잣담, 원담, 산담, 올레담 못지않게 세상을 바꿀 덕담을 쌓는 일이 쉽지 않다. 정성을 다한 돌담이 무너지지 않듯, 진심을 갖고 토해낸 덕담이 상대방에게 그리고 사회에 큰 디딤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해녀굿, 새로운 콘텐츠로의 가능성



강권웅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

제주도는 2018년도부터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제주도 내 어촌계에서 진행되는 전통의례인 해녀굿에 대한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거행되는 해녀들의 무사안녕 기원 의례인 해녀굿은 음력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두 달간 제주도 내 30여 곳에서 어촌계 주관으로 행해지는 데 영등굿, 잡수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예전부터 한 해 동안의 조업 중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영등신과 용왕신에게 매년 의례를 거행해 왔다. 영등굿에 대한 문헌 기록은 조선시대 1530년

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있다. 민간에서 영등신은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에 사는 신으로서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제주도로 찾아왔다가 이달 15일에 우도를 통해 본국으로 되돌아간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전통을 자랑하는 해녀들의 전통의례는 현대화와 해녀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점차 소멸돼 현재는 30여개 어촌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녀굿을 단순 공동체 의례에서 더 나아가 제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주도 해안가 30여 곳에서 이뤄지는 해녀굿은 어디다 내놓아도 충분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께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 구축해 놓은 제주해녀 문화자료를 잘 엮어내면 내로라하는 제주만의 K-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집회의 자유와 도민의 평온권 보장



고동우 제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수많은 단체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집회 현상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분별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음 제감 피해가 큰 주거지·학교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등가소음 측정시간 및 최고 소음 위반 횟수 단축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

년 10월 17일부로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소음 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등가소음 측정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최고 소음 기준의 경우에는 기존 1시간 내 3회를 위반해야 처벌됐던 규정이 2회만 위반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집회 개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 규제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질서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도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호 존중과 배려로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룬 성숙한 집회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신정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 골덴라사. 맞춤 양복은 명품(名品)입니다. 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입니다. 제주시 남성로 166(남문로터리 서쪽) T. 722-3679, H,P 010-7622-3679